

대만에서의 한국어 문화교육 현황과 개선 방안 연구 -온라인 속담 강의를 중심으로-

진경지*

一. 서론

1990년대 후반부터 한류열풍의 영향으로 한국어를 학습하는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조성되었고 한국어교육의 질이나 양적인 면에서도 많은 성장을 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과거의 언어교육은 구조주의 언어학의 영향을 받았음으로써 언어를 학습할 때 언어적 구조와 문법에만 중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새로이 등장한 기능주의 언어학은 언어의 구조나 형식에 대한 개별적인 학습보다는 학습자와 타인과의 상호작용 즉 의사소통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다. 이런 개념의 대두는 의사소통 중심의 언어교육을 정식으로 등장시키게 된 계기가 되었다.

언어 학습의 중심은 원활한 의사소통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한국의 문법에 맞는 문장을 담화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산출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에 관한 지식의 습득도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한다. 언어란 단순히 의사전달 수단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관이나 생활 양상 등의 문화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언어 학습의 궁극적인 목표는 의사소통 능력 신장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목표 언어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들어 한국어 교육계에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 역시 문화교육에 대한 강조와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라는 것도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한국어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한국어 문화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대만에서의 한국어교육을 위한 더욱 효과적인 문화교육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二. 문화와 문화교육

1. 문화의 정의

문화교육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문화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문화 인류학자 Edward Tyler(1871)는 일찍이 문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한 바 있다. 그는 문화를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률, 관습, 그리고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인간에 의해 습득된 모든 능력과 관습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총체”라고 정의하였다.¹ 이 정의에 의하면 문화는 사회적으로 학습되고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 공유되는 것이며, 물질적이나 비물질적인 요소를 골고루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국어사전에서도 문화를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이나 생활 양식의 과정

* 대만 국립정치대학교

¹ Edward Tyler(1871), 『Primitive Culture』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하여 낸 물질적·정신적 소득을 통틀어 이르는 말. 의식주를 비롯하여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제도 따위를 모두 포함한다.”라고 자세히 정의했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해석하자면 인간들이 역사 발전 속에서 창출한 모든 성과물을 전부 문화의 구성 요소로 볼 수 있다.²

2. 문화교육의 필요성

상기 내용에서 천명한 바와 같이 문화의 구성 요소는 상당히 다양하다. 그리고 이 수많은 문화 구성 요소들 중에서 특히 언어는 문화의 지속적인 생성·전파·수용·재생성 과정 속에서 매체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문화 형성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언어를 배제한 채 이루어질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전달과 계승의 과정에서는 언어가 필수적인 요건으로 작용한다. 외국어를 학습한다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 목표 언어만 학습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언어에 담긴 그 나라의 문화를 학습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해당 언어가 가지고 있는 형식적인 특징이나 그 형식에 의해 나타난 의미를 알더라도 그 언어에 내포된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렵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외국어 교육에서의 문화교육은 목표 언어를 사회의 문화적 맥락에 맞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힘이 있다. 조항록(2002)은 문화교육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낯선 언어인 한국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의 증대를 통해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강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³ 따라서 효과적인 한국어교육을 위해서는 언어와 문화의 병행적·통합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외국어를 학습할 때 목표 언어의 문장이나 문단을 글자 그대로 언어학적인 방식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는 문장이나 문단 속에 활용의미나 상황의미가 존재하고 이 두 가지의 의미는 또한 그 언어가 속한 문화속에서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어와 문화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짐으로 언어의 학습은 바로 문화의 학습이며, 언어의 교육은 바로 문화의 교육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문화와 언어가 가지는 이러한 연관성은 교육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은 국어교육과 달리 대상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인에게는 너무나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에게는 낯설고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다. 요컨대 한국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문화적 고정관념을 탈피하거나 문화적인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라도 한국어 문화교육은 꼭 필요하다.

三. 대만에서의 한국어 문화교육 현황 및 문제점

1. 대만에서의 한국어 문화교육 현황

1956년 7월 대만 국립정치대학에서는 동방어문학과에 한국어조가 설립되었다가 2000년 한국어문학과로 승격된 지 벌써 55년이라는 긴 세월이

²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www.korean.go.kr/09_new/

³ 조항록(2002), 「한국어문화교육론의 주요 쟁점과 과제」, 『21세기 한국어교육학의 과제와 전망』, 한국문화사

지났다. 그 사이에 중국문화대학(1963), 국립고웅대학(2008)도 잇따라 한국어교육을 시작하여 현재 대만에서는 국립정치대학 한국어문학과, 중국문화대학 한국어문학과, 그리고 국립고웅대학 동아어문학과 한국어조에서 학사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한국어교육의 초창기에는 졸업 후 진로를 비롯한 현실적인 문제로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한국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과 한류열풍으로 인해 대만 사람들은 한국이란 나라뿐만 아니라 한국어 학습에 대해서도 시선을 돌리게 되었다. 유연환·오혜순(2009)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만에서의 대학, 그리고 대학 외에 각종 공사립 교육기관에서 연간 개설된 한국어 관련 강의 과목 수량이 461 개에 이르렀다고 한다.⁴ 비록 대학의 한국어 관련 학과는 3 개 학과 뿐이지만 각종 공사립 기관에 개설된 한국어 관련 과목이 이처럼 많은 것은 대학 전공자뿐만 아니라 민간인에게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는 한국어에 대한 교육 열기를 그대로 반영한 결과라 생각되어진다. 2년이 지난 오늘, 한류열풍은 더욱 더 가열되었으며 이에 따른 한국어 관련 과목의 개설은 더 증가되었을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이어서 대만에서의 한국어 문화교육의 현황, 즉 한국 문화를 교육 목적으로 한 강의 배정과 문화교육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겠다. 현황을 조사하기 전에 먼저 조사 대상을 대만에서의 4년제 대학교로 한정시키고 일부 대학원⁵, 그리고 기타 공사립 보급 교육 등 한국어 교육 관련 기관은 이번 통계자료에서 모두 배제시키겠다. 그 이유는 국립정치대학, 중국문화대학, 국립고웅대학 등 세 군데의 한국어교육 기관은 교육부서로서 장기적이고 정규적으로 한국어교육이 진행되어 왔고 교사의 초빙, 그리고 학생의 확보 또한 엄격한 규정에 따라 선출되어 왔으므로 같은 기준에서 서로 비교하면 공동적인 현상과 문제점을 쉽게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분류	국립정치대학	중국문화대학	국립고웅대학
필수과목 (학점*학기)			東亞社會概論(2*1)
선택과목 (학점*학기)	韓國文學概論(2*2) 韓國文化概論(2*1) 韓國地理(2*1) 韓國社會(2*1) 韓國歷史(2*1)	認識韓國(2*1) 韓國地理(2*1) 韓國民俗學(2*2) 韓國史(2*2) 韓國文化史(2*1) 韓國人性格論(2*2) 韓國文學概論(2*1) 韓國文選(2*1)	韓國社會文化(2*2) 韓國(朝鮮)史(2*1) 韓國地理(2*1) 韓國文學選讀(2*1)
문화교육 학점수	12	22	12

⁴ 游娟環·吳惠純(2009), 「台灣地區韓語教育的回顧與展望」, 『第十八屆中韓文化關係國際學術會議論文集』, 中華民國韓國研究學會, p.137

⁵ 대만의 중국문화대학은 2000년에 석사과정을 설립하여 한국어학특강, 한국신화연구, 한국근대사 연구 등을 비롯한 전문 수업을 개설해 왔다.

졸업 학점수	132	128	128
-----------	-----	-----	-----

(2010 학년도 대만의 3 개 대학의 문화교육 관련 과목의 개설 현황)⁶

위에 제시된 도표를 보면 세 학교의 문화교육 과목의 명칭, 학점수, 이수 학기수, 문화교육 과목 학점수, 그리고 졸업 학점수까지 분명하게 정리하고 있다. 이 자료를 통해서 현재 대만의 대학교에서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실제적인 현황 및 문제점도 한 눈에 알 수 있다. 요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필수과목으로 보면 문화교육의 과목수와 학점은 현저히 적다. 도표에 제시된 수치만을 따르자면 학습자들이 개설된 문화교육 관련 강의를 모두 이수해도 졸업 학점에 차차히는 비율은 국립정치대학 9%, 중국문화대학 17.2%, 국립고웅대학 9.3%에 불과하다. 국립정치대학의 경우, 2007 년에 입학한 한국어학과 학생들은 한국역사, 한국지리, 한국문화개론, 한국문학개론, 그리고 한국어언어학개론 등의 과목을 필수과목으로서 모두 수료해야만 졸업할 수 있었다.⁷ 그러나 교육부와 대학의 다원적인 학습통로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과에서도 필수과목 학점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 이에 2008 년에 이상 네 개의 문화교육 과목을 모두 선택과목으로 변경되었고 현재에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관련 과목만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됨으로써 언어능력만이 중요시되는 학과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은 학과 설립 시의 교육 목표와 설립 취지와 거리감이 있다.⁸ 이렇게 선택과목으로 변경된 문화교육 과목은 학생들의 자유의지에 의해 선택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은 부전공이나 복수전공 학점으로 충당할 수 있는 더 ‘실속’ 있는 타 학과 전공과목을 선택한다. 그래서 한국어 문화 관련 과목은 강의신청 학생수의 부족 등을 원인으로 개설할 때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선택과목으로서의 문화교육 과목은 이름만 있고 실상은 존재하지 않은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할 수 있다.
- ② 언어와 문화를 통합한 과목 설계가 필요하다. 현재 개설된 한국어 필수과목 강의내용을 보면 대부분 언어능력의 향상에만 치중한 과목이다보니 문화교육을 체계적이고 의도적으로 만든 과목은 매우 드물다. 설령 문화 관련 내용이 있더라도 대부분 강의 과정에서 교수자의 경험을 통해 임의로 첨가되어져 설명됨으로써 강의 과목의 주제나 목표에 맞춰

⁶ 표에 제시된 문화교육 과목은 강의 설계 시 문화를 교수하는 목표로 설정되었는지에 따라서 선택기준을 삼았다. 문화 내용을 위주로 하는 과목이 아닌 언어훈련을 중심으로 하는 과목은 이상의 표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경제, 정치 관련 전문적인 과목도 제외하기로 하였다.

⁷ 한국문학개론과 한국어언어학개론은 모두 필수과목에 해당되지만 이 둘 중 하나만 선택하면 된다.

⁸ 국립정치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육 목표: “...교수 측면에는 학생들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 의사소통 능력을 훈련시키고 한국 역사, 문화, 문학 내지 정치, 경제 등 한국 학과 관련된 기초 지식 전수에 집중하고 인문 소양을 겸비하는 한국어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因此教學上即著重在學生韓語聽、說、讀、寫溝通能力的訓練, 以及韓國歷史、文化、文學, 乃至政治、經濟等韓國學相關基礎知識的傳授, 以期培育出兼備人文素養之韓語專門人才。)” (<http://korean.nccu.edu.tw/introduction/pages.php?ID=page25>)

심층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이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증천부(2003)는 이런 대만의 문화교육 실정에 대해 일찍이 지적한 바 있다. 8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와 크게 차이가 없다고 사료된다.⁹ 반대로 애초에 한국 문화를 다루기 위한 과목을 살펴보면 아예 한국어 언어교육이 없거나 있어도 문법 번역식 교수법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을 심증팔구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언어와 문화를 통합시키지 못한 채 한 쪽에만 치우친다면 진정한 의사소통 능력을 사실상 구비하기가 힘들다.

- ③ 문화교육의 과목은 주로 고학년 강의를 배정된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 단기간에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학년에서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의 과목이 집중적으로 편성된다. 둘째, 현재 유통되고 있는 한국어 문화 교재는 문법, 어휘도 어려울뿐더러 심층적인 내용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저학년 학생들에게 교수하기에 아직까지 어렵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한국어 능력이 상대적으로 좋은 고학년 학생들도 언어적인 장애와 문화적인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왕왕 있다.

2.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향

이상에서 제시된 대만에서의 문화교육 현황은 학교간의 사소한 차이가 있겠지만 앞으로 직면할 문제점은 거의 유사하다. 이에 다음과 같이 세 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 ① 대학 필수과목 학점수의 감소는 교육부의 지정 정책이 된 이상 아무리 언어교육은 통재가 아닌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하더라도 당분간 문화 관련 과목이 필수과목으로 회복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선택과목으로 변경된 문화 관련 과목은 반드시 학습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계되어야 하고 과편적으로 이루어졌던 종전의 방식에서 벗어나 좀 더 심층적이고 창의적인 교육 방식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전자의 경우는 현재 문화교육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자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을 위주로 한 과목에서 간헐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문화 요소를 소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체계적이고 의식적으로 내용을 설정하고 교수해야 한다. 허나 이러한 방식이 장기적으로 올바른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타 학과로의 유인과 수강신청 학생수의 격감으로 이어지는 현재의 사정으로 보면 시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¹⁰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볼 때, 교육 내용을 변화시키기보다 교육

⁹ 증천부(2003), 「대만에서의 문화를 통한 한국어교육의 실정과 개선 방향」, 『제5회 한국어교육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서울대학교 한국어교육연구소, p.111: “현재 대만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국어교육을 돌이켜 보면, 우선 기능적 관점에서 한국어의 의사소통 능력의 함양에만 치우친 감이 없지 않으며, 설령 문화 교육을 병행하고 있기는 하되 단편적인 사실을 제공하는 데 그치고 사고의 방식, 표현의 원리 등 보다 심층적으로 한국 문화를 체득하게 교육하는 데는 소홀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즉 뚜렷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를 비중 있게 다루었던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¹⁰ 2010학년도 2학기제의 통계로 보면 총학생수가 166명인 국립정치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의 한국에 체류 중인 교환학생수는 29명에 달했으며 전체 학생수의 약 17.5%라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중에서 고학년 학생수가 특히 많다.

방식을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현재 있는 과목을 변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문화교육을 하려면 문화 관련 강의 후 보충 교재를 실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지면상의 교재가 아닌 비교적 상호작용이 이뤄질 수 있는 자주적이고 개별적인 교육 방식이 필수적이다. 이런 수요에 발 맞추기 위해 최근 학생들 사이에 주목 받고 있는 온라인 교육을 도입하여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② 온전한 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을 획득하려면 언어와 문화를 통합하는 교육이 필수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강의 내용을 설정할 때 학습자들에게 일방적인 문화 지식의 전달이 아닌 언어와 문화가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국 문화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가 가능하다. 따라서 언어와 문화를 통합시킬 수 있는 문화교육 주제와 내용을 개발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또한 개발 과정에서 현재 유통되고 있는 한국어 문화교육 교재와 달리 자국의 언어와 문화를 대조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습자의 흥미와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 ③ 문화교육 과목이 고학년 수업에 집중된 것은 한국어 교육계에서는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원인을 찾아보면 저학년 학생의 언어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있지만 문화교육 주제와 큰 연관성이 있다. 문화교육의 주제에 따라 교수 내용도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에 지나치게 심오하거나 복잡한 주제를 설정하면 내용 역시 설명하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문화 포용력이 비교적 강한 주제이면서 그 주제가 간단명료하며 전통적이든 현대적이든 문화교육의 다방면적인 학습이 가능한 방향으로 난이도를 조절해야 한다.

요컨대 앞서 제기된 개선 방향을 크게 온라인 강의의 개설, 언어와 문화의 통합, 그리고 난이도의 조절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수렴할 수 있으며 그 실제적인 개선 방안은 다음 장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四. 속담을 이용한 한국어 문화교육 개선 방안

1. 현재까지의 문화교육 시도 현황

현재 한국어교육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화교육은 90년대 후반에 들어서야 각광 받고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2000년에 들어 문화와 관련된 한국어교육 연구는 대대적으로 발전하여 내용적인 면에서나 양적인 면에서도 전과 달리 비약적인 성과를 보여주었다.

모국어를 통한 문화적 정체성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한 민현식(2000)은 최초로 한국어와 문화의 상관성을 연구하는 ‘국어 문화론’의 필요성을 제출했다.¹¹ 조향록(1998, 2000)은 한국어의 고급 단계뿐만 아니라 초급에서도 문화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에 필요한 문화적 이해능력을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그에 대한 방법을 거시적으로 제

¹¹ 민현식(1996), 「한국어교육을 위한 국어 문화론 내용 구성 연구」, 『파리국제학술회의 논문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시하였다.¹² 그 후 문화교육의 필요성이 인식되면서 김중섭(2005)은 한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문화교육에서 나타난 상황을 소개하고 앞으로 처리해야 할 과제도 함께 제출하였다.¹³ 이런 연구 풍조로 인해 특정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인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문화간의 차이로 출발하는 문화교육 지도 방안도 나타났다.¹⁴

문화교육에 대한 각종 연구가 속출됨으로써 문화교육의 전체적인 구조도 날로 성숙해져 갔다. 이런 기초에 입각하여 여러 주제나 매개로 문화교육을 시도하는 연구도 활발해졌다. 문학으로는 신화, 소설, 시, 설화, 민요, 판소리 등을, 어학으로는 문법, 어휘, 관용표현 등을, 대중매체로는 신문, 대중가요 등을, 그리고 한국 역사를 광범위하게 이용해서 실질적인 문화교육 현장에 적용해서 실험해 왔다. 이러한 실험 결과에서 얻은 교육 방안과 모형은 한국어 문화교육의 교수법 및 학습자에 있어 매우 의미가 있고 유용한 자료라고 생각한다.

2. 문화교육으로서의 속담

이상에서 정리한 것과 같이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문화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은 많은 논의들이 있어 왔다. 하지만 이런 연구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한국인 교수자의 관점으로 만든 것이지 외국의 실제적인 한국어교육 환경과 상황에 맞춰서 설계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문화교육을 실행하려면 대만에서의 한국어교육 실정에 맞는 교육 방안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에 속담을 문화교육의 주제로 정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게 된 이유는 다음의 세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 ① 온라인 강의 개설 문제: 기존 과목의 변동없이 문화교육을 시행하려면 현 실정을 볼때 강의 후 보충 교재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고 효과적이다. 보충 교재로 사용하려면 간략하면서도 포용력이 큰 주제가 좋다. 속담은 인간의 실제 생활 속에서 얻어진 것이고 구비의 형식으로 광범위하게 전해지며 간결하고 통속적인 어구 속에 교훈, 풍자 등의 효용성을 지닌 말이다.¹⁵ 속담의 이런 장점을 온라인 강의에 응용한다면 그 신선하고 활발한 교육 방식이 학습자의 흥미를 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② 언어와 문화의 통합 문제: 언어의 표현과 사용은 그 나라의 문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앞 장에서 다룬 적이 있다. 속담을 문화교육

¹² 조향록(1998), 「한국어 고급 과정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문화 교육 방안」, 『한국어교육』 9-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조향록(2000), 「초급 단계에서의 한국어교육과 문화 교육」, 『한국어교육』 1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¹³ 김중섭(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 교육 연구의 현황 및 과제」, 『이중언어학』 제27호, 이중언어학회

¹⁴ 조정순(2005),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언어문화교육이 한국어 학습에 미치는 효과」,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¹⁵ 진경지(2002), 「한·중 속담 비교 연구 — 변용과 와전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논문, p.10

주제로 활용하는 것은 속담은 그 자체가 문화적인 내포성이 강하고 그 민족의 지혜의 결정체이며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생활경험과 사회현상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속담을 제대로 이해하면 속담 자체의 의미뿐만 아니라 한국어만이 갖고 있는 언어적인 특성과 문화적인 배경도 같이 배울 수 있다. 특히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자에게 자기 나라의 속담과 비교분석함으로써 언어적으로나 문화적인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사소통 능력의 배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③ 난이도 문제: 저학년 학습자의 언어적인 이해 능력과 문화적인 이해 능력이 부족함으로 문화교육 과목은 고학년 수업에 집중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신문이나 소설과 같은 주제로 문화교육이 진행된다면 교수자가 내용의 난이도를 주도하지 못해서 저학년 학습자에게 활용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제한된 강의시간 안에 간결하면서도 현대문화와 전통문화를 아우를 수 있는 속담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다.

속담은 현재 대만에서의 문화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 온라인 교육 또한 난처한 교육 실정을 풀어줄 수 있는 관건이다. 다음 장에서 문화교육의 내용적인 측면으로서의 속담과 방법적인 측면으로서의 온라인 강의를 이용해서 대만 문화교육에 대한 실제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3. 속담을 활용한 온라인 강의

최근 세계 각국의 언어교육 현장을 살펴보면 모두 온라인 강의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각종 온라인 강의와 교재 개발에 열중하는 추세를 보인다.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강의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극복할 수 있어 직접 만나서 교수하는 전통적인 강의 방식과는 큰 차이가 있다. 물론 온라인 강의가 장점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온라인 강의는 전통적인 교수법과 달리 교육현장에서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상호작용과 피드백이 결여되기 있기 때문에 학습자와의 커뮤니티를 정기적으로 성립하지 못하여 학습자의 학습 흥미를 감소시킬 수 있고 학습 효과를 떨어뜨리기 쉽다. 따라서 온라인 강의를 실행하는 것은 전통적인 강의를 대신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출발점에 입각하여 온라인 강의를 문화교육 방법으로 설정하고 앞서 천명한 속담의 장점을 이용해 문화교육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① 내용적인 측면에서

본 문화교육 개선 방안은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이다. 첫 번째 단계에는 온라인 속담 강의의 실질적인 내용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속담의 선정, 번역방식의 선택 그리고 문화교육 내용의 보충 등 세 항목을 포함한다. 속담의 선정에는 사용 빈도수¹⁶, 이해 난이도¹⁷, 그리고

¹⁶ 사용 빈도수는 속담을 선정할 때 필요한 선결 조건이다. 사용 빈도수가 낮은 속담은 효용 가치가 없음을 뜻하지는 않지만 제한된 교수시간에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취사선택은

사회적 인식¹⁸ 등 세 가지 기준으로 설정하며 수많은 속담 자료 중에서 교수 방향을 잃지 않도록 수량이 방대한 속담은 제외시킨다.

필자는 속담의 번역 방식의 선택에 있어서 정식적인 문화 관련 수업을 제외한 한국어 수업을 100시간 이상 공부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조사한 바 있다. 속담에 대한 문화적 인식이 없다는 전제 하에 학습자는 자신의 한국어 능력을 활용하여 직역한 한국 속담의 의미는 속담이 실제로 표현하려는 의미에 약 58% 근접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제시된 속담이 매우 간단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거나 그 표현이 중국어의 표현과 유사한 경우 학생들은 그 참뜻이 쉬이 유추해 낸다. 즉, 이와 같은 현상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한국 속담을 직역해주고 한국 속담과 비슷한 중국의 속담, 성어 등의 관용표현을 제시한다면 60%이상의 학생이 참뜻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40%의 경우는 대부분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양국 속담의 유사성을 유추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하기 때문이다. 이는 양국의 속담이 같은 표현을 빌려도 다른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이런 속담들은 의역해서 번역하고 추가로 문화 설명을 보충해야 한다.¹⁹

온라인 강의는 전통적인 강의 방식과는 달리 학습자의 의문에 즉각적인 회답을 기대하기가 어려움으로 가능하면 완벽한 정보를 제공하여 학습할

반드시 필요하다. 어떤 학자는 자기의 교학 경험으로 첫 단계의 속담을 선정한 후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한국학생들로 하여금 자주 쓰는 속담을 골라내는 방식을 채택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 순위에 따라 속담을 선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첫 번째 단계의 선정 과정에서 의식적이나 무의식적으로 교수자의 주관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어떤 학자들은 기존의 한국어교육 자료를 통해서 속담의 사용 빈도수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조현용(2007)은 한국어 교재와 한국어능력 시험의 시험 제목에 한정하여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한국어 교재에 두 번 이상 나타난 속담을 통계하고 정리하였다. 동시에 한국어능력시험에 출제된 속담을 계산하여 반복적으로 나타난 속담의 순위를 매겼다. 한국어교재와 한국어능력시험은 학습적인 면이나 능력 평가면에서 외국인 학습자들의 중요한 학습 매개로서 좀 더 공신력이 있는 통계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와 같은 조사방식은 현재로써 최선안이라고 할 수 있다.

¹⁷ 속담의 내용 안에는 선인들의 많은 지혜가 포함되어 있고 강력한 풍자와 교훈의 의미가 있어서 한국 사람의 일상생활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한국 속담의 이런 장점이 종종 외국 학습자에게는 속담의 진정한 장점을 느끼기 전에 이해곤란이라는 문제에 부딪힐 것이다. 이해 장애를 겪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학습자 자신의 한국어 능력의 부족이나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 결핍에서 비롯된다.

¹⁸ 속담에는 비록 선인들이 지혜가 많이 수록되어 있지만 상대적으로 시의에 맞지 않은 가치관념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속담을 선정할 때 사회적 인식을 고려하여 적당히 선별해야 한다.

¹⁹ 예를 들면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同價紅裳)’란 한국 속담은 가격이 같거나 같은 노력을 한다면 품질이 좋은 것을 택한다는 의미이다. 이 속담은 비록 직역과 의역의 과정을 거치더라도 대만 학습자에게 있어 이 내용이 표현하려는 의미를 찾기 어렵다. 이때 문화적 단원이 필요하다. 청상(靑裳)은 푸른 치마를 가르키며 조선시대의 과부나 기생들이 입는 것이었다. 이에 대비하여 홍상(紅裳)은 아직 시집도 가지 못하는 처녀를 지칭한다. 과거에 여성을 물화시키고 처녀를 선호하는 경향이 심한 시대라는 것을 제시하면 이런 속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같은 값이면 처녀 장가’나 ‘같은 과부면 젊은 과부’같은 속담도 같은 맥락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다홍치마를 왕족들만 입을 수 있었으며, 양반들도 안감으로만 쓸 수 있었다고 한다. 일반 조선 여자의 경우 결혼식때에나 다홍치마를 입어 볼 수 있었음으로 그 만큼 가치 있게 생각했다. 이와 같이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부가설명을 하면 학습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과도하게 방대한 정보로 학습자의 학습 효과와 흥미를 저하시키지 않도록 학습의 분량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본 온라인 속담 강의 내용 제작 시 직역과 의역의 방식을 동시에 채택하여 사용함과 동시에 중국의 유사한 표현이나 한국의 속담 관련 문화를 소개하는 문화 단원과 연결시켜 질과 양의 균형을 아울러 고려한다. 다음 표1은 상기에서 서술한 방법으로 제작된 강의 내용이며 총 116단원의 강의로 이루어져 있다.

대화 내용	A: 엄마! 애기 용품을 왜 이렇게 많이 샀어? B: 에이! 이런 것은 먼저 사 뒀야 된다고. 애기 낳고 나서 준비하면 너무 늦잖니? A: 정말 떡줄 사람은 꿈도 안 꾸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고. 나 아직 아기 가질 생각 없어. B: 예효! 나야 빨리 손자를 보고 싶어서 그렇지. 알았어. 니가 알아서 해. [동영상]
어휘 문법	용품(用品) 【名詞】用品 -아/어/여 두다 【常用表現】表示動作完成，並保持其結果狀態。
대화 번역	A: 媽！妳為什麼買了這麼多嬰兒用品啊？ B: 唉呀！我想說這些東西要先買起來啊！等小孩出生了後才準備的話不是太遲了嗎？ A: 真是俗話說的（ ），我還沒有懷孕生小孩的打算。 B: 哎唷！我是想早點抱孫子才那樣的。我知道了！妳就自己看著辦吧！
한국 속담	떡 줄 사람은 꿈도 안 꾸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
어휘 문법	김칫국 【名詞】泡菜湯
속담 직역	要給年糕的人連夢都還沒做，就開始喝起泡菜湯。
속담 의역	要做(給)的人都還沒開始想，就自己先以為都好了而行動。

유사 표현	(韓文表現) 김치국부터 마신다. 떡방아 소리 듣고 김치국 찾는다. 앞집 떡 치는 소리 듣고 김치국부터 마신다. (中文表現) 魚未捉到，忙著煎魚。 未捉到熊，倒先賣皮。
문화 단위	韓國最具代表性的食物 —— 泡菜  有吃過韓國料理的人都知道，對於韓國人來說，飯桌上絕對少不了的一道菜就是泡菜。泡菜不僅是韓國人下飯的佐菜，更儼然已成為了韓國飲食文化的代表。但這代表韓國食物的泡菜究竟是如何在韓國出現的？本文將做一簡單的介紹。 根據《三國史記》的記載，新羅神文王結婚時的聘禮中，有一種用鹽醃製發酵製成的蔬菜稱為‘醢’，這種食物可以說是泡菜形成前的雛形。到了高麗時期，對於這種醃製發酵而成的蔬菜有相當多的紀錄，並稱之為‘菹’或‘漬’，至於現在韓國泡菜的名稱‘김치’則是從朝鮮時期的漢字名稱‘沈菜’音變而來的。 一般人對於泡菜的印象都是口味辛辣、顏色鮮紅，但其實古代的韓國泡菜並非如此。根據《增補山林經濟》的記載，辣椒大約是在朝鮮後期約西元 1590 年前後才傳入韓國，也就是說韓國人嗜吃辛辣食物的飲食習慣最早是從那時才開始。至於泡菜的主要材料白菜，則是從中國傳入，再經過改良育種後廣泛使用於泡菜的製作。 那泡菜究竟為何會成為韓國人不可或缺的食物呢？這跟韓國的氣候有極大的關係。韓國冬季天寒地凍，蔬菜栽種不易，唯一的辦法就是將蔬菜經由醃製發酵的過程保存起來，如此一來，越冬期間便能不愁無蔬菜可吃。且比起曬乾的保存方式，醃製發酵更能保存蔬菜中含有的纖維素與維他命。 雖然在韓國的市面上隨處都能買到各式各樣的泡菜，但是在冬季來臨之前，還是可以發現家家戶戶都在製作泡菜，韓語稱之為‘김장’，含有大量製作泡菜存放的意思。有的人家，也會將精心製做好的泡菜分送親戚好友，以表示心意。

(표 1)

② 기술적인 측면에서

본 온라인 강의는 Wisdom Master Pro란 시스템을 채택하고자 한다. 이 시스템은 다국어를 지원할 뿐 아니라 멀티미디어 편집 기능,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 기능까지 구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전자 게시판, 토론실, 메신저, 화상채팅, 파일 공유 등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다양한 기능을 완비하고 있음에도 시스템 활용 및 접근이 용이해 교수자의 관리 감독이 효율적이며 학습자 역시 접근하기 쉽고 다양한 혜택을 누림으로써 흥미 또한 유발할 수 있다. 현재 대만 국립정치대학교 외국어센터는 바로 이 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강의를 구축하여 E-Learning의 언어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²⁰ 따라서 앞으로 온라인 속담 강의가 구축된다면 문화교육의 보충 교재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문화교육으로서의 확실한 자리매김도 가능하다고 본다. 실제적인 온라인 강의 화면은 다음과 같다.



(온라인 한국어 강의의 실제 화면)

이 장에서는 온라인 강의의 기술면에서 출발하여 교수 과정과 연습 테스트라는 두 방향에 맞춰 실질적이고 가능한 온라인 교육 방안을 제출하고자 한다. 교수 과정면에서는 주제 도입, 번역 제시, 그리고 보충 설명 등 세

²⁰ 대만 국립정치대학교 외국어센터는 2005년부터 원격 화상교육을 발전시키기 시작했고 2008년에 그 첫 단계의 목표를 달성하여 한국어, 러시아어, 터키어, 베트남어 등 23개의 외국어 기초 학습 과정을 완성했다. 학습 내용은 어휘, 문형 그리고 문법 학습 등의 단원을 포괄한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2번째 단계에 진입한 외국어는 한국어, 터키어, 슬라브어(원 러시아어), 일본어, 베트남어 등 총 5개의 언어가 있다. 2번째 단계의 목표는 종전의 언어 학습 과정을 기초로 언어적인 응용과 역사문화적 단원을 추가하여 선택과목으로써 한 학기에 3학점을 인정해 주며 총 18주의 강의로 이루어진다. 현재(2010년 5월까지) 이미 18개의 단원을 완성하였고 학생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이다.

단계의 순서로 진행할 것이며 연습 테스트면에서는 해당 테스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각종 시험문제의 개발과 연결을 시도할 것이다. 상세한 내용과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가. 교수 과정

㉠ 첫 번째 단계 : 주제 도입

과거의 속담 교재는 양이 적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학습 범위가 어휘와 문법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이런 문화적 배경 지식 없이 독자적 번역 방식만을 채택한 결과 늘 학습자로 하여금 속담에 대한 완전한 수용을 어렵게 하여 상황에 따른 활용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었다.²¹ 따라서 본 온라인 강의의 첫 단계에서는 주제 도입의 방식을 채택하여 해당 속담을 먼저 제시하여 직역하지 않고 실제 대화 내용만 제공한다. 이는 학습자들에게 실제 접할 수 있는 모의 상황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가 대화 맥락 속에서 속담의 의미를 유추하도록 유도하며 자신의 한국어 실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속담의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에 파생되는 음성이나 동영상 파일을 부가적으로 첨부하면 학습자들이 좀 더 쉽게 참여할 수 있고 학습 흥미도 유발할 수 있다. 단 음성과 동영상의 첨부는 화면상 동시에 출현하는 것이 아니고 학습자의 수요에 따라 단계별로 제공한다.

㉡ 두 번째 단계 : 번역 제시

두 번째 단계에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속담의 구체적인 번역을 제시하여 첫 단계에 있는 대화 내용과 연결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이때 어휘와 문법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대화 내용에 대한 번역도 함께 제시함으로써 속담의 완전한 수용이 가능하여 실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번역 방식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직역과 의역의 두 가지 방식으로 제공될 것이다.

㉢ 세 번째 단계: 보충 설명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에서 제시된 어휘와 문법 해석, 직역과 의역의 번역 항목은 광의적으로 보면 언어교육의 범주에 속하며 세 번째 단계의 보충 설명이야말로 문화교육 영역에 편향된다. 본 단계에서는 관련 속담과 사자성어, 혈후어(歇後語) 등을 비롯해서 양국과 관련된 관용표현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속담 속에 문화적 배경이 되거나 소개할 만한 문화 소재를 찾아 설명하고 그 출처에 대한 설명도 곁들인다. 더불어 심화 학습을 원하는 학습자를 위해 관련 자료가 수록된 인터넷 페이지나 사이트의 링크

21 최권진(2008), 「속담을 활용한 한국어교재 개발의 실제」, 『국어교육연구』 제21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 연구소, p.258: “속담은 단어를 분리하여 학습하는 것보다는 말뭉치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휘가 말뭉치로 입력되었을 때 학습자들은 그들이 인지한 입력을 완전한 수용으로 전환하기가 쉬우며 문맥 속에서 개별적 어휘의 관계에 대한 귀납적인 인식을 얻게 된다.”

를 제공하여 학습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돕는다. 이런 단계별 학습은 언어와 문화를 통합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속담의 실제적인 활용도 가능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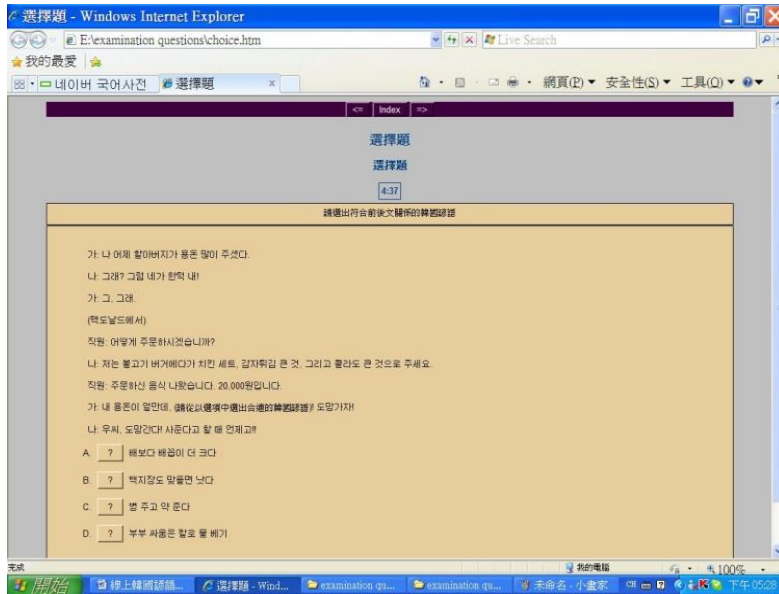
나. 연습 테스트

일련의 교수 과정을 이수한 학습자는 반복적인 연습과 학습 성과를 점검할 단계에 진입한다. 연습 테스트는 학습의 방향과 중점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복습의 보조 교재 역할을 한다. 따라서 연습 테스트의 개발은 특히 중요하며 본 교육 개선 방안의 중점 중의 하나다. 연습 테스트를 시행할 수 있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면 교체 연습(Substitution drill), 연결 연습(Connection drill), 완성 연습(Completion drill), 상황 연습(Situation drill), 확장 연습(Expansion drill), 변형 연습(Transformation drill) 등이 있는데 속담의 특성과 학습자의 능력에 따라 적당히 조절되어야 한다.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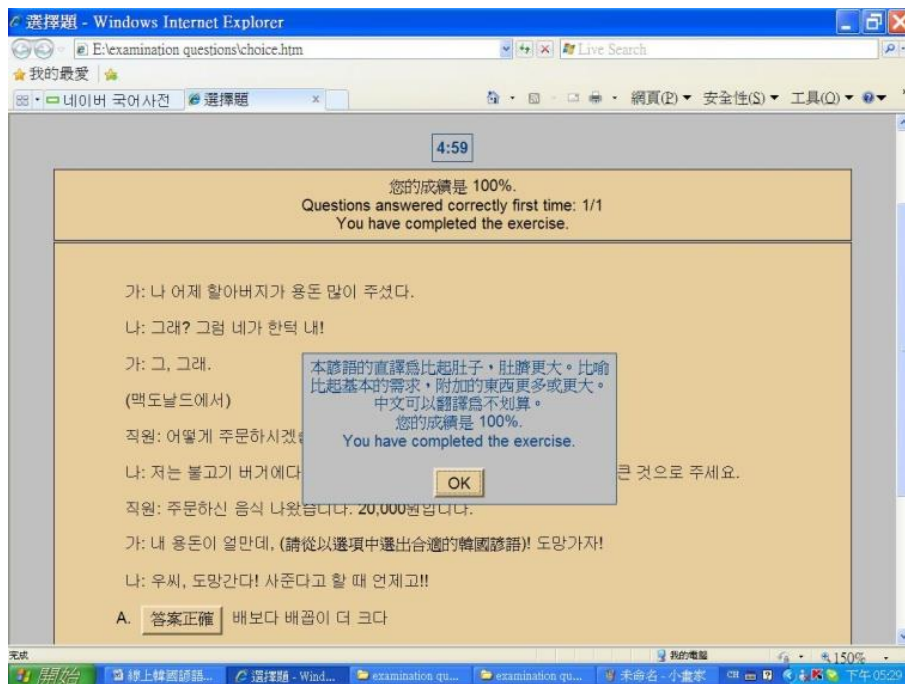
필자는 온라인 강의에 Hot Potatoes²³란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연습 테스트를 개발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제작 과정이 쉬울 뿐만 아니라 제작 가능한 내용의 범주도 다양하다. 예를 들면 십자 낱말 맞추기(JCross), 빈칸 메우기(JCloze), 선 긋기(JMatch), 단답식, 선다식, 진위식 답하기(JQuiz), 순서대로 재구성하기(JMix) 등 다섯 가지의 모델이 제공되는데 지면 관계상 JQuiz의 모델을 이용한 연습 테스트만을 그 실례로 들겠다.

²² 김제열(2007), 「한국어 문법 교육론」, 『한국어 교수법의 실제』, 연세대학교 출판부, pp.133~137

²³ Hot Potatoes는 일종의 상호작용적 프로그램이며 캐나다의 University of Computing and Media Centre의 연구개발팀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다국어 지원을 제공한다. 교수자는 각 과정의 필요에 따라 각종 형태의 연습, 시험 문제를 설계할 수 있다. 제작된 문제를 온라인 강의 서버에 업로드하면 학습자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연습을 할 수 있고 정답과 함께 즉각적인 의견과 같은 피드백도 받을 수 있다.



〈대화 내용에 맞춰 적당한 속담을 고르는 실례〉



〈즉각적인 피드백 화면〉

JQuiz는 단답식, 선다식, 그리고 진위식 답하기의 세가지 모델이 제공되는데 이 세가지 모델은 또 다시 여러 가지의 모델로 변화시킬 수 있다. 선다식의 모델의 경우 화면에 카운트 다운 기능을 설정할 수 있음으로 학습자의 테스트 시간을 쉽게 제어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에게 문제의 난이도가 다소 높을 경우 화면상 별도의 아이콘으로 동영상 파일이나 음성 파일 등 좀 더 다채로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자로 하여금 정확한 답안을 선택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학습자는 답안을 선택한 후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정답 제공, 선택된 답의 실제적인 의미,

그리고 관련된 보조 정보 등을 학습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실제 상황에서의 속담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학습자의 이해력과 기억력 향상을 돕는다. 이 밖에도 급수별로 대량의 문제은행을 설치하면 프로그램의 부속 기능을 이용해 다량의 문제 가운데 임의로 추출하여 학습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으로 학습자들이 중복적으로 강의에 들어올 때에도 같은 문제를 피할 수 있어 진정한 의미의 점검과 복습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五. 앞으로의 과제

지금까지 대만의 한국어교육 실정에 맞게 속담을 이용하여 언어와 문화를 통합할 수 있는 한국어교육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 방안은 아직까지도 설계 단계에 있을 뿐 실제적인 검증과 그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와 연구 결과는 없다. 더불어 온라인 강의는 전통적인 강의 방식과 달리 최신 과학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아직까지 미결된 문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삼고 본 연구를 마무리하겠다.

1. 강의 내용 제작자와 홈페이지 제작자 사이의 의사소통 장애

본 온라인 강의의 내용은 대부분 한국어로 표시되기 때문에 홈페이지 제작자가 한국어를 모를 경우 홈페이지 제작자와 강의 내용 제작자 사이에 장벽과 오해가 생길 수 있음으로 홈페이지 제작자나 보조자를 채용할 때 한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혹은 한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채용하지 못할 경우 홈페이지 제작자는 별도의 한국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는 제작 소요 예산 및 시간에 많은 영향을 주지만 완성도 높은 온라인 강의 제작을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다.

2. 인터넷의 속도와 품질 문제

온라인 강의의 내용을 완벽하고 풍부하게 제작한다 하더라도 인터넷 속도와 품질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 그림의 떡과 같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 봐야 한다. 첫째, 음성과 영상 파일은 압축의 형태를 취하여 인터넷상 사용량을 차지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수신자 쪽의 인터넷 환경과 품질도 고려하여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 둘째, 인터넷 속도를 늘려야 한다. 현재 국립정치대학교 캠퍼스 안에서는 이미 광케이블이 설치 되어 있고 다운로드와 업로드 속도가 원칙적으로 모두 100Mbps 에 달한다. 그러나 수신자 쪽의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면 역시 원활한 강의 진행은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사전 조사와 테스트가 꼭 필요하다.

3. 학습자의 자율성 부족으로 인한 학습효과의 저해

온라인 강의는 전통적인 강의 방식과 달리 학습자의 자진적인 학습 태도

가 학습의 효율과 성패를 좌우한다. 물론 온라인 강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적당한 요구를 할 수 있지만 이는 단기적인 효과이며 장기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커뮤니티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사이에 지장이 없는 의사소통 통로를 만들어 서로간의 소속감이 생겨야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참고문헌

- 강진숙(2010), 「한국사를 활용한 한국어 문화교육 방안 연구 — 조선 시대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 강혜민(2006), 「고전소설을 통한 한국어교육 — 문화교육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혜화(2008), 「신문을 이용한 한국어 문화교육 방안」,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병석(2010), 「대중가요를 활용한 한국 문화교육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호(2007), 「고급 문법-문화 통합 한국어교육 연구」, 고려대학교 언어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제열(2007), 「한국어 문법 교육론」, 『한국어 교수법의 실제』, 연세대학교 출판부
- 김중섭(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교육 연구의 현황 및 과제」, 『이중언어학』 제 27 호, 이중언어학회
- 김훈(2008), 「한국어 문화교육을 위한 신문 활용 방안 — 고급단계 학습자를 대상으로」,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현식(1996), 「한국어교육을 위한 국어 문화론 내용 구성 연구」, 『파리국제학술회의 논문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박춘연(2010), 「중국 내 한국 문화교육 과정 설계 연구」,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 손단(2010), 「소설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 문화교육 연구」,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 연선자(2008), 「판소리를 활용한 한국 문화교육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경석(2007), 「민요를 활용한 한국 문화교육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游娟鑽, 吳惠純(2009), 「台灣地區韓語教育的回顧與展望」, 『第十八屆中韓文化關係國際學術會議論文集』, 中華民國韓國研究學會
- 이동규(2005), 「중·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문화 어휘 교육 — 속담 관용어 교육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소영(2001), 「한국어 교재의 문화 요소 분석 및 한국어 문화 통합 교수 방안 — 웹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희진(2008), 「부교재로서의 한국어 웹 교재 활용 방안」,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순홍(2007),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교육 연구 — 시 활용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홍화(2010),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중 속담 비교 연구 — 한국어 속담 활용 교육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 조정순(2005),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언어문화교육이 한국어 학습에 미치는 효과」,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향록(1998), 「한국어 고급 과정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문화교육 방안」,

- 『한국어교육』 9-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조향록(2000), 「초급 단계에서의 한국어교육과 문화교육」, 『한국어교육』 1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조향록(2002), 「한국어 문화교육론의 주요 쟁점과 과제」, 『21세기 한국어 교육학의 과제와 전망』, 한국문화사
- 종량(2009), 「신화를 활용한 한국어 문화교육 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 曾天富(2003), 「대만에서의 문화를 통한 한국어 교육의 실정과 개선방향」, 『제 5 회 한국어교육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진경지(2002), 「한·중 속담 비교 연구 — 변용과 와전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논문, p.10
- 최권진(2008), 「속담을 활용한 한국어 교재 개발의 실제」, 『국어교육연구』 제 21 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황정혜(2010), 「한·중 관용표현을 통한 한국 문화교육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中文摘要】

臺灣的韓國語文化教育現況與改善方案研究

— 以線上諺語課程為中心 —

90 年代後期，隨著韓流風潮的興起，世界各國學習韓國語的人口與日俱增。在這股韓國語學習的風潮下，韓國語教學不管是在質與量上，都有長足的進展，目前韓國語儼然已躍上優勢語種之列。

早期的語言教育因受到結構主義的影響，大多將教育的重點置於語言結構與文法的學習上。但在 70 年代以後，受到機能主義一派抬頭的影響，溝通能力的提升成為了語言教育的重要項目，而掌握溝通能力的文化要素也順勢成為了語言教育的焦點，文化教育的設計與研究因此成為了近來語言教育的顯學。

針對文化教育這個議題，本論文審視了臺灣的國立政治大學、中國文化大學及國立高雄大學等三所設有韓國語相關學位的科系，藉由分析三所學校實際開設的課程後發現，在韓國語文化教育上存在著不少的瓶頸與急待解決的問題。對於這些難題，筆者嘗試利用韓國的諺語，作為統合眾多文化要素，並且結合語言與文化兩大領域的主題。

為了有效地解決韓國語文化教育上的問題，本論文先從‘文化’談起，針對文化一詞的定義，以及運用於語言教育的必要性做一簡單闡述。接著觀察目前大學韓國語文化教育實施的現況，並從中找出問題的癥結。針對這些問題，在檢討既有韓國語文化教育的嘗試與研究後，發掘出韓國諺語運用於韓國語文化教育的實用性與適切性。最後，為了達成提升語言溝通能力的終極目標，研擬了線上諺語課程作為文化教育的改善方案，期望能提供現今臺灣韓國語文化教育另一個發展的方向與出口。